

발행인 정인보

발행일 2022년 8월 1일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편집집 교육과정부

편집위원 김금순(안동부설초등학교)

김효주(영천여자중학교)

정용수(장성초등학교)

김필곤(장성초등학교)

모성현(월포초등학교)

'탄소Zero' 실천으로 종이인쇄물을
발간하지 않습니다.

8월의

positive Gyo6 freecycle 2022 AUG
경북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교육 실천 이야기



‘고운 언어로 빚어내어 고요히 실어 보내는 향기’ “校庭에 은은하게 스며드는 문학 이야기”



코스모스 안덕중학교 교장 송재성

SUMMARY | 요약

01 — 시로 삶의 마당을 쓸다

시의 언어를 카오스의 혼돈 속에서 고집어내어 질서 있게 정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막상 시로 태어나면 그것은 보석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르친다는 것도 학생이라는 보석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지 못한다. 시에 의해서 언어의 집이 건축되듯이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다.

02 — 선배 작가 교사가 풀어준 글쓰기의 삶

글쓰기는 참 묘한 매력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에게 동시 쓰는 일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의 모습을 글로 쓰려면 우선 아이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과 친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면 그들의 장점을 보게 된다. 오, 이런 멋진 글쓰기의 매력이라니!

03 —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답이 없는 확장형 문학교육’

문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내용들을 학생들이 ‘자아-타인-사회’의 영역으로 확장 및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아닐까. ‘자유와 소통의 중심지’ 학교도서관에서 독서교육 전문가인 사서교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조금은 무모하고도 특별한 문학교육을 소개한다.

시로 삶의 마당을 쓸다

김신중 소수중학교 교장

01 시인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란 게 있다. 물론 우연하게 사람이나 시를 만나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우연마저 어느 날 갑자기 필연으로 느낄 때가 많다. 내게 운명적으로 다가온 사람은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였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보들레르의 시 ‘교감(Correspondances)’이었다. 교감을 읽는 순간 받은 충격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자연은 하나의 신전, 거기에 살아 있는 기둥은/ 이따금 어렴풋한 말소리를 내고,/ 인간이 거기 상징(象徴)의 숲을 지나면/ 숲은 정다운 눈으로 그를 지켜본다.// 밤처럼, 그리고 빛처럼 광막한/ 어둡고 그윽한 조화 속에서/ 저 멀리 어울리는 긴 메아리처럼/ 향기와 빛깔과 소리가 서로 화합한다.” 자연은 상징의 숲이며, 그 숲속에서 향기와 빛깔과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며 교감한다는 것이다.

보들레르를 만나기 전에는 주로 사물의 겉을 봤다. 노을이 아름답고 산이 웅장하며 지는 꽃이 애처로웠다. 바람이 불었다.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깨어났을 때 바람에 흔들리면서 반짝이는 미르나못잎을 보면서 멍청 아름다움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사물의 겉만을 맴돌면서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짧은 시절을 보냈다. 이때, 보들레르가 딱 하니 나타났다. 교감은 사물의 내면을 보게 했다. 사물의 내면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향기와 색깔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런 사물들이 모여 상징의 숲을 이루게 되니 이때부터 숲에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도 흘러나오는 교향곡을 해석하면서 향기와 색깔과 소리가 춤추는 것을 쓰면 되었다.



02

하이데거는 시를 언어의 건축물이라고 했다. 언어의 건축물 속에는 결국 사람들이 살아간다. 시를 쓰다보면 어느덧 사물을 넘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흔이 지나면 사람으로서 성숙해진다. 마흔쯤 되면 서정주의 말처럼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도 보고 이웃에 눈길도 주게 되는 것이다. ‘불혹문전(不惑門前)에서’를 쓰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혹의 나이가 넘으니/ 낮선 곳에서 바라보는 산도/ 어디서 본 듯해 낯설지 않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아주 오래 전이던가/ 꼭 한번은 만난 듯하다./ 나지막이 앉아 있는 산도/ 낮게 보이지 않아 아담하고,/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못한 모습보다는/ 가리킨 그 손가락이 오히려/ 부끄럽게 보인다./ 불혹문전에 선 사람들은/ 문이 낮으면 고개를 숙여/ 낮은 문을 닦하지 않고/ 길이 좁다고/ 길을 두른 나무들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남은 길에 어둠이 가득하다./ 불혹문전에 서니/ 어둠마저 동행임을 알겠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시적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만났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들 인생에서 참 소중한 분들이다. 지금 생각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망각의 늪에 빠져 많은 보석들을 잃어버렸다. 교직생활의 상당 부분을 고3 담임과 교무부장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변명 같지만 시도 많이 잃어 버렸다. 누가 뭐라 해도 글은 멍 때릴 때 나올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퇴직이 다 된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1980년대 어느 날, 골목 선술집에서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술을 마시던 체육, 상담, 수학선생님, 야간자율학습 지각 단속을 하면서 늦은 학생을 야단치다가 노을에 비친 학생의 얼굴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던 기억도 있다. 벽지 중학교에서 몸이 아파 사택에 누워 있는데 처마에 달린 풍경 소리에 딱 하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깨달음도 있었다.

“막 도착했을 때 그들은 취해 있었다./ 세 사람은 같은 화덕연탄구이 원탁에 앉아/ 양미리를 구우며 막걸리를 마셨다./ 무의식 안에 부는 외로운 바람소리만 술병에 떨어졌다./ 현실과 몽상의 들판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외로움’을 매개로 끊어졌다 연결되다가/ 술에 취해 각자 몽상 속으로 떠났다.”(‘80년대 어느 술집의 기억’ 앞부분)



“인문계 고등학교 야자를 하면서 나는 주로 지각생 단속을 했는데, 그 날도 지각생 몇 녀석이 높은 언덕을 험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줄을 세워서 야단을 치려는 순간, 서산의 노을이 하늘과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숨을 헉헉대는 녀석들의 얼굴에 노을 꽃이 활짝 피어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라는 말에 녀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가고 나는 한참 동안을 멍하니 운동장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한 순간에 왜 이렇게 세상 일이 덧없이 보일까요?”(‘노을’ 전문)

“풍경은 제 몸을 두드려/ 바람이 있음을 알리네./ 나도 오늘 내 몸을 두드려/ 그대 사랑 있음을 알리고 싶네./ 내 몸에도 오동나무 있어/ 사랑의 노래 숨어 있으니/ 아직은 바라는 것들이 많아서/ 몸을 비울 수 없네./ 그대 사랑 알릴 수 없네./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 누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면/ 어둔 문을 열어/ 내 몸을 비울 것이니/ 뜨거운 숨결로 나를 흔들어/ 그대 사랑 있음을 알리게 하게.”(‘풍경소리’ 전문)



03

초등학교 5학년에 아버지께서 내 지계를 만들어 주셨다. 지금과 같은 세월이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지 만 60년대 중반이니 지계를 선물(?)로 받는 것이 가능한 세월이기도 했다. 조그만 몸짓에 지계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빙그레 웃음을 떠올린다. 한 여름에 싸리 꽃이 필 때쯤이면 싸리비를 만들기 위해 싸리나무를 하러 산에 가곤 했는데, 싸리나무를 하다가 벌집을 쑤시고 말았다. 수없이 벌에 쏘이고도 지금도 끄떡없이 살아 있는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로 고생을 했으니 시 한 편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싸리비를 매기 위해

싸리나무를 하러 무학봉으로 갔었다.

알싸한 싸리 꽃향기를 맡으며

여기저기 낫질을 하며 돌아치다

땅벌 집을 건드리고 말았다.

독한 땅벌들은 팔 다리를 쏘고도 모자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마구 공격했다.

집에 돌아와 쏘인 자리에 된장을 붙이면서

싸리비를 만들어 마당을 쓰는 일이

살을 내어놓는 아픔임을 알았다.

그때로부터 사십년이 지나면서

가르치거나 시를 쓰는 일도

싸리비 한 자루를 만들어

세상의 한 부분을 쓸고 닦는 것임을 알았다.

비록 쓸어야 할 것들이

얼음처럼 견고하게 달라붙어

쉽게 부서지거나 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비질을 한다.

이 땅위에 있는 모든 보석들은

캄캄한 바위 속에서도 비질을 통해

조금씩 드러났음을 믿기 때문이다.

- '싸리비에 얽힌 회상' 전문 -



시골의 일이란 게 쉬운 일이 없다. 어린 힘에 모든 일이 힘겨웠다. 나는 유독 마당 쓸기만은 좋아했다. 지저분한 마당을 빗자루로 쓸다보면 깨끗하게 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즐거웠다. 아버지께서 빗자루를 매신다고 하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것을 지켜보곤 했다. 싸리 빗자루가 완성되면 제일 먼저 마당을 쓸어보는 것이다. 그런 빗자루를 맨다고 하시니 싸리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다. 벌에 쏘인 자리에 된장을 붙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정말이지 빗자루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나이가 들어 생각하니 마당을 쓰는 일도 살을 내어 놓는 아픔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를 쓰는 일도 그렇지만 가르치는 것도 빗자루를 만들어 마당을 쓰는 것과 같다. 평평하고 깨끗한 마당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당을 쓸다가 지푸라기가 흙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쓰는 게 쉽지가 않다. 몇 번이고 비질을 하든지 허리를 숙여 검불을 끄집어내야 할 때도 있다. 아니 지푸라기를 쓸어내지 못할 때도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깨끗한 마당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시의 언어를 카오스의 혼돈 속에서 끄집어내어 질서 있게 정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막상 시로 태어나면 그것은 보석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르친다는 것도 학생이라는 보석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지 못한다. 어쩌면 어둠 속에 갇힌 꽃과 같이 혼란과 혼돈의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비질을 하고 기다려 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다. 시에 의해서 언어의 집이 건축되듯이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다.

[김신중]

- 월간 문학으로 문단에 나감
- 경북중등문예연구회장 역임
- 경상북도문학상 수상
- 시집 『동근밥상』 외 다수
- 현) 소수중학교 교장

선배 작가 교사가 끌어준 글쓰기의 삶

송명원 풍기북부초 교사

한때는 작가의 삶을 동경했다. 섬진강 시인인 김용택 선생님의 삶과 글이 부러웠다. 자신의 고향인 진메마을과 모교인 덕치분교에서 산골 아이들과 생활하는 모습이 그려진 책과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보고 마냥 동경했다. 김용택 시인의 책이란 책은 다 사서 읽었다. 시집 뿐 아니라 교육에세이, 아이들의 작품을 엮은 시집까지. 대구 인근에서 김용택 선생님과 작가 만남을 한다고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갔다. 교대 3학년 시절 여름방학, 같은 과 후배와 전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죽 좋았으면 마암분교를 찾아갔을까. 7월초 이른 아침시간에 불쑥 찾아가서 김용택 선생님과 책 속에 나오던 아이들도 만났다. 멀뚱멀뚱 쳐다보던 아이들과 달리 괜히 신나서 친한 척 말도 걸었다. 김용택 선생님과 차 한 잔 마시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생각했다. '아. 멋지다. 이 모습! 닮고 싶어.' 이쯤 되면 틀림없는 병이다.

대학 4학년 졸업논문을 준비하면서 초등교사이며 아동문학을 하신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났다. 임길택 선생님. 이미 아동문학에 대한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질 때였다. 아동문학은 동화와 동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김용택 선생님을 글과 함께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동시의 매력에 빠져있었다. 당연히 김용택 선생님의 작품과 삶에 대해 졸업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목부터 촌스런 동시집 하나가 눈에 속 들어왔다.

『탄광마을 아이들』

흰색의 바탕 표지에 그려진 촌티가 줄줄 흐르는 두 명의 남자 아이 모습. 학교라고 보이지 않는 오래된 단층 건물. 검붉은 색의 어두운 느낌. '뭐야, 이게 동시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언가에 끌리 듯 책장을 넘겼다. 첫째 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책을 내면서'의 네 줄을 잊을 수가 없다.

『한때는 비좁기만 하던 탄광마을이 이제는 점점 비어만 갑니다. 그 탄광마을에 살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읽으며, 지금도 곳곳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곳의 친구들을 마음으로나마 깊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0.4 임길택』

단숨에 읽었다.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동시집을 읽는 동안 나는 내 방이 아닌, 강원도 사북의 탄광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곳의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탄가루를 뒤집어쓰며 공을 차고 있었고, 따뜻한 방안에 엮드려 함께 책을 읽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막장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고, 굴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갯도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누굴까,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신 분이?' 저자 소개를 자세히 다시 봤다. 임길택! 몇 줄 되지 않는 저자 소개의 마지막 한 줄.

『1997년 12월 11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남.』

‘아’ 나도 모르게 나온 한 마디.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는데... 여름방학 때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도 잠시. 임길택 선생님의 책을 모두 샀다.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은 물론, 구하기 어려운 책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모았다. 정했다. 졸업논문은 당연히 임길택 작가의 작품과 삶을 썼다.

임길택 선생님의 작품을 모두 읽은 나는 당장 그 해 여름방학 때 가방 하나 훌러덩 메고는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탄광마을인 강원도 사북을 찾아갔다. 『탄광마을 아이들』 속에 그려진 그곳을 혼자 거닐며 좋아하고 감동하고 감성에 젖었다. 물어 물어 찾아간 선생님의 시비(詩碑) 앞에서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앞에서는 나는 결심 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위쪽, 강원도 사북과 가까운 봉화로 첫 발령지를 희망했고, 희망대로 나는 첫 발령을 받았다. 임길택 선생님을 닮고 싶어 강원도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려고도 했으나 집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곳 봉화. 그곳에서의 생활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다. 좁고 더운 사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했고, 매일 저녁은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시피 했다. 외롭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밤에는 온전히 홀로 지내는 시간이었고, 말 한마디 편히 나눌 또래 친구 선생님 한명 주위에 없었다. 운전이 서툰 때였고,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퇴근만 하면 사택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잠자기도 이른 시간,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던 시간, 그 시간에 임길택 선생님의 동시와 동화를 다시 읽으며 ‘그냥 대구로 시험을 칠걸 괜히 봉화로 왔어.’ 후회되는 마음을 몇 번이고 다 잡았다.

참 많이도 읽었다. 빵을 좀 친다면 학교도서관에서 구입한 동화와 동시책을 거의 다 읽었다. 읽다보니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한번 써 볼까. 임길택 선생님처럼 이 곳의 생활을, 보고 들은 이야기를 쓰면 동시가 되지 않을까?’

많이 읽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많이 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에,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응모도 많이 했다. 즐거웠다. 물론 응모한 작품이 등단 소식을 가져오지 않을 땐 실망도 컸지만 놓치는 않았다. 임길택 선생님처럼 내가 생활하는 여기, 이곳의 보고 들은 이야기를 쓰면 등단은 못하더라도 나중에 퇴임할 때 나에게만큼은 큰 선물이 될 것 같았다. 그 믿음 하나로 계속 썼다. 읽고 쓰고 응모하고 떨어지고, 읽고 쓰고 응모하고 또 떨어지고.....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지 나는 지금 교사를 하면서 동시 쓰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동경하고 그리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론이다. 행복하다. 하지만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 처음에는 임길택 선생님을 흉내 내는 동시 쓰기였다면 지금은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글쓰기는 참 묘한 매력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에게 동시 쓰는 일(동화쓰기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의 모습을 글로 쓰려면 우선 아이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시울이는 왜 저런 말을 할까?’, ‘현정이는 왜 아침을 안 먹고 왔을까?’처럼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러다보니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생각과 모습을 이해하게 되니 글을 쓰기 이전보다 훨씬 아이들과 친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또 글 쓰기의 주인공들은 모범생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장난을 잘 치는 아이, 말을 안 하는 아이, 공부를 못하지만 청소 하나만큼은 잘 하는 아이들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반의 많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장점을 보게 된 것이다. 오, 이런 멋진 글쓰기의 매력이라니!

솔직히 지금 동시 쓰기는 처음 쓸 때 보다는 정말 힘들다. ‘글 쓰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도 하지만 소재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는 묻는다. 싱글벙글 웃으며 내 옆에 와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또 고맙다. “오늘 아침 뭐 먹고 왔어?” “지난 주 말에 뭐했어?”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선배 선생님이자 작가인 임길택 선생님이 이끌어준 글 쓰는 교사의 길. 그의 글과 삶에 나는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를 닮고자 나름대로 흉내를 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그가 걸어간 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만 조금씩 나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또 조심스레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내 글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가슴 한 칸에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을까?’ 글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또한... 정말 어렵다.



성냥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눈 하나를 꼭 품고 있다

기회는
딱 한번

세상을 따듯하게
밝힐 수 있는

작은 꽃눈 하나를
꼭 품고 있다

- 『시장의 법칙』 (송명원, 열린어린이, 2022) -

[송명원]

- 2011년 푸른문학상 수상
- 어린이시집 『내 입은 불량 입』 엮음
(경상북도 e-독서친구 추천도서, 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작품 수록)
- 동시집 『짜장면 먹는 날』 출간
- 동시집 『보리 나가신다』 출간(2018 문학나눔 도서 선정)
- 동시집 『시장의 법칙』 출간
- 어린이시집 『나는 팝콘이에요』 엮음
- 마음동시집 『똑, 똑, 마음입니다』 (공저), 『내 마음에 사랑이 다닥다닥』 (공저), 『똑, 똑, 평화입니다』 (공저)출간
- 교단에세이 『너희들의 봄이 궁금하다』, 『교실의 온도』 출간
-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현)영주 풍기북부초등학교 교사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답이 없는 확장형 문학교육’

정원진 구미 해마루중학교 사서교사

학교에서 학생이 아닌 교사로 지내는 게 이제야 적응이 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던 신규교사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작년 한 해는 의욕만 앞선 채 헤매기만 했던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그 ‘신규의 무지’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저런 도서관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독서 활동을 무작정 계획하고 겁 없이 시도해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경북의 사서교사는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현재 학교마다 배치되어있는 사서교사는 그 학교의 ‘개교 이래 첫 번째 사서교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더욱 어깨가 무겁다. 사서교사만이 느끼는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나오는 무게 덕분이다. 2년 차에 접어든 지금도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을 책임지는, 전교에서 유일한 존재인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다.

지난 1년간 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은 씩씩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시험 성적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 ‘원래 그게 당연한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도 커 보였다. 게다가 그 중 대다수는 자신의 성적과 능력이 애매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부끄러웠던 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한 아이들에게 진로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고, 시험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 곁에 있는 어른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세상이 저한테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는, 한 남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구미가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점과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관내에서 수준이 높은 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해 한 해 급격히 시들어가는 아이들을 보고도 그뻘 다 그렇지, 하며 모른 척하는 건 아이들에게 있어 너무 잔인하지 않나. 현재의 학교 교육은 적어도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보다는 나아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상실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클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하나 둘씩 만나면 만날수록 얼굴 한 구석에서 어둠이 느껴진다. 사서교사인 내가 아이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문학교육’에 있었다.

아이들은 문학을 좋아한다. 문학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건 '소설'. 주제 분류 800번의 도서가 도서관에 있는 주제 분야 중 가장 많은데, 그 중 '한국현대소설'을 뜻하는 '813.6'이 제일 대출률이 높다. 북 큐레이션을 해놓으면 소설책을 전시해둔 곳부터 아이들이 몰린다. 종종 아이들에게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재미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라고 해맑게 답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소설만 좋아하는 건 아니다. 짧고 굵게 마음을 울리는 '시'나 작가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에세이'만 찾는 아이들도 제법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문학'과 연계한 교육 활동을 사서교사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구축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구하는 내내 '학생들의 눈물 섞인 호소'와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존재 의미'를 잊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정한 몇 가지 원칙을 아래에 쓴다.

첫째, 교사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문학을 학생이 '원하는 대로' 음미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지금부터는 위 원칙들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정답이 없는 확장형 문학교육'의 대표적 활동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나’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글쓰기, ‘독립출판 프로그램’



1) 개요

- ① 대상·인원 : 본교 3학년 희망자 10명 이내
- ② 프로그램 일정
 - 3월 : 희망자 모집 및 출판 기획서 작성, 글쓰기 교육
 - 4월~10월 : 원고 작성 및 수시·정기 피드백, 글쓰기 상담, 학생 합평회, 관련 도서 독서
 - 11월 : 원고 퇴고, 제목 확정, 표지 및 내지 디자인
 - 12월 : 인쇄 및 지역 독립서점 입고, 출간 기념회 (입고는 올해 활동 예정)
- ③ 예산 : 인쇄비 100만원 (100페이지 기준 도서 1종 10권당 10~15만원 소요)

2) 활동 진행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학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라 생각한다.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들과 사람들이 존재했는지,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는 어떤 사람이고,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자문자답해보며 ‘나’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을 시로, 에세이로, 소설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별 지도하고, 학생들의 문해력과 작문 실력을 높이는 한편 자신만의 고유한 문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과 생각이 응축된 하나의 이야기를 독립출판의 방식을 통해 책의 형태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자존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년이라는 시간 안에 100페이지 이상 분량의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고입을 앞둔 3학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2학기 개학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글을 많이 모아둘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다. 내신 성적 관리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 등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글 쓰는 시간 덕분에 팍팍한 삶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글쓰기의 필요성과 효과를 몸소 느끼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프로그램 대상을 중학교 3학년으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책을 출판하는 동기 부여가 가장 잘 되기 때문이다.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내년을 기약'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는 2학년 희망자 10명 중 1명만이 출판에 성공하였다. 3학년 희망자 9명은 전원이 출판에 성공한 것을 보면 '올해가 나만의 책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글쓰기에 있어 큰 동기 요인으로 보인다. (참고로, 1학년을 대상으로는 각 반마다 1차시씩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다. PPT와 학습지를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직접 만든 예시와 함께 글을 잘 쓰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밤'을 주제로 미니 백일장을 열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밤'과 관련된 나만의 글감을 찾고 진지하게 글을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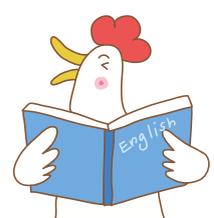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은 글쓰기의 '글감'을 찾는 일이었다. 글을 쓸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 글쓰기가 어렵다고 상담을 요청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경우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방법을 추천하였다. 예를 들어, '취향'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로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색깔, 계절, 음식, 장소, 시간 등에 대해 떠올리다 보면 무수한 글감이 탄생한다.

실제 한 학생은 '계절'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봄'-'입학식'-'내 생애 첫사랑'으로 사고를 이어나가 첫사랑의 간질간질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고, 다른 학생은 '겨울'-'크리스마스'-'내게 지옥 같았던 크리스마스'의 흐름으로 자신이 어릴 적 크리스마스 날에 겪었던 가정 내 불화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비계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고가 가능한 글감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글이 불품없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만의 문체와 감성이 있다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사의 칭찬은 학생들이 글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에세이팁, 소설팁, 시팁으로 나누어 장르별로 교육을 진행했다. 에세이는 목차 구성과 소재의 배치, 글의 통일성, 여타 에세이와의 차별성이 중요하고, 소설은 글쓰기 초기 단계부터 대주제 아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는 소설의 구성을 비롯하여 등장인물의 세부 요소, 시간적, 공간적 배경 설정을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이 중요한 것과 같이 장르별로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적시에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피드백 시 가장 주의했던 점은, 학생들의 고유한 문체와 감성이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 지도를 하고자 한 점이었다. '더 맛깔 나는 문장을 쓰는 방법', '현재 너의 이야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소' 등을 가르쳐주고, 수정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늘 학생에게 맡겼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체도 글을 쓰는 주체도 '학생'이니 말이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검토는 되고 후에 한 번에 진행했다.

표지 및 내지 디자인의 경우, 작년에는 '하루북' 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작업 진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책의 구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의 외형과 책날개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알려주고, 간지의 삽입 여부와 제목 페이지, 목차 페이지, 소제목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폰트와 글씨 크기, 장평과 행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물론, 교사가 가장 보기 좋다고 생각되는 형식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학생들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는 학생들과 디자인 회의를 통해 교사인 내가 직접 작년에 배워둔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책 디자인을 해보려 한다.

책이 나오면 학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것을 문학으로 탄생시키는 '독립출판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02

문학으로 '세상'을 관통하는 말하기, '비경쟁식 독서토론 수업'



1) 개요

- ① 대상·인원 : 2,3학년 독서토론 동아리 부원 12명
- ② 대상 도서 (문학만 기입)
 - 『아몬드』, 손원평 저 (2017)
 - 『기억하는 소설』, 강영숙 외 7인 저 (2021)
 - 『서영동 이야기』, 조남주 저 (2022)
- ③ 예산 : 100만원 (도서 구입, 간식비 등에 소요)

2) 활동 진행

학생들은 독서토론에 대해 '어렵고 딱딱한'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현재 나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독서토론 동아리 학생들도 '내가 잘 해내지 못할까 봐' 동아리 신청을 망설였다고 했는데, 한 학기가 지난 지금은 독서토론을 '쉽고 재미있는' 놀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

비경쟁식 독서토론이 좋은 이유는 '자유롭고' '정답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생각도 정답, 내 생각도 정답, 네 감정도 정답, 내 감정도 정답이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주다 보면 쭈뼛쭈뼛하던 학생들이 경계를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 정답을 맞히지 못할까 봐, 내 대답이 틀릴까 봐, 질문하는 교사의 눈을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내 발언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너도나도 먼저 손을 드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도 행복하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려는 모습, 두 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더 하자고 조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또, 교과서가 유도하는 한 가지의 정답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수업 내내 맴도는 게 참 좋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짊어줘야 하는 경쟁식 독서토론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 작품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 이해의 깊이는 배가 된다. 『아몬드』는 '나의 감정'과 '공감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서영동 이야기』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서사'와 '집단 서사'를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소설』은 '타인의 아픔'이 어떻게 '나의 아픔'과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확장되는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위 세 가지 작품 모두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은 작품이다.



진행 방법은 간단하다. 학생들에게는 2주 동안 독서할 시간을 주고, 책을 읽을 때 인상 깊은 문장, 어려운 문장,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문장에 각각 표시를 해올 것을 당부한다. 토론을 진행할 때에는 교사가 먼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챕터별로 학생들이 표시해 온 문장과 관련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어떻게 ‘타인’과 ‘사회 및 공동체’의 문제로 연결되는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발문을 적절히

사용한다. 독서토론을 통해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이유는 독서토론이 ‘상부상조(相扶相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타인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그 반대로 가능하므로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비경쟁식 독서토론의 묘미다.

마지막으로, 비경쟁식 독서토론을 진행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 중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특히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해줄 때 효과가 좋다. 이 원칙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무슨 말이라도 짜내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옆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교사를 필두로 다른 친구들 모두가 그 말도 정답이라고 호응해주는 걸 목격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아무리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나도 한번 말해 볼까?’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결국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나마 말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생각도 정답으로 인정받으면서 말하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이러한 비경쟁식 독서토론 수업에는 인지적 측면으로나 정서적 측면으로나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배움의 요소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오늘도 나는 학교도서관에서 아이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한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목적은 제각각이다. 책을 읽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하기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수다를 떨고 싶어서, 도서관의 아늑한 분위기가 그저 좋아서.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공간인 학교도서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은 정답이 없어 자유롭고, 나의 세계를 나와 타인, 더 나아가 세상으로까지 넓힐 수 있어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다.

학교도서관의 역할도 그런 게 아닐까. 교실 안에 꼼짝없이 앉아 있는, 교과서의 텍스트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그 밖으로 꺼내주는 것. 몇 가지의 주요 교과 성적으로 그 학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학교도서관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찾고 반납하는 대출 반납 공간도, 숨 막히게 조용한 휴식 공간도 아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수업 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성적표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은 ‘자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장(場)’이 아닐까.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든, 책과 정보와의 소통이든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되돌아보고, 타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흐름을 읽어낼 줄 아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는 공간 말이다. 이곳에서의 조금은 무모하고도 특별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